



현재 삶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세계시민으로 사는 작가의 길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황석영 작가의 신작소설 《바리데기》에 관한 독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다. “황석영 작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소설이다”라는 것과 “우리 민족의 문제와 세계의 혼란은 운명적으로 하나구나”하는 것이다.

바리데기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소설은 함북 청진 항구에서 태어난 바리라는 소녀가 탈북 과정에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중국을 거쳐 영국 런던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이동’과 ‘조화’라는 21세기의 화두를 담고 있다.

2000년 이후 발표한 《오래된 정원》《손님》《심청》 등에서 작가가 보여주었던 세계 작가로서의 면모가 이번 작품에 이르면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를 위해 출판사에서 만난 그는 방송과 신문, 강연회 일정 등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좀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황석영’의 소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리라. 일단은 《바리데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바리’라는 인물의 상징성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리데기》는 우리네 형식과 서사에 현재의 세계가 마주친 현실을 담아낸 작업입니다. 바리는 마치 드로잉의 피사체 같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바리데기 신화를 현재로 가지고 오면서 현실적 타당성에도 신경을 썼지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메타포와 환상을 동원한 것은 우리시대의 시적 서사입니다. 사실적 디테일을 따지기보다는 시적 대목으로 읽어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가 부령의 식구들을 찾으러 떠났다가 어느 마을에서 굶주려 죽은 혼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은 증언하듯이 사실적으로 그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의 그림자로서 환상은 예술적 기법일 뿐 아니라 논리적인 것보다 더욱 깊이 있게 현실을 포착하게 해 주니까요.”

책을 읽다보면 나라 밖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북한의 기근과 홍수, 미국의 9·11테러, 중국의 인신매매, 영국 런던의 폭탄 테러 등이 거미줄의 이쪽과 저쪽처럼 이어져있어 작은 떨림조차도 누군가의 생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쯤 되면 그가 강조하는 “자신과 한반도의 현재 삶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 사는 작가의 길”이라는 의미를 알 것도 같다.

“망명 체험이 나의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북하고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무척 외로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국가주의로부터 ‘왕따’를 당했지만 뒤집어놓고 보면 국가라든가 국경이라든가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기도 하지요. 결국 작가에게는 모국어만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와 한반도의 문제를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작가가 국경이나 국적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물론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존재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공유함으로써 최소한 지옥처럼 변해가는 21세기의 혼란과 갈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작가 황석영’이란 이름이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단지 문학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다. 이는 고교시절 《사상계》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그가 《객지》《삼포가는 길》《무기의 그늘》《장길산》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활동하다가 2000년 1989년 감행했던 ‘방북’과 관련이 깊다. 그는 방북 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했고, 7년의 옥고를 치루고 1998년 석방되었다. 이후 그가 쓰는 작품의 영역이 한국에서 동아시아로, 동아시아에서 다시 전 세계로 넓어진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문학의 ‘진정성’에 대한 작가의 믿음이 굳건해진 때문이다.

“문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보다는 사람의 관점이나 낡은 생각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관점이나 시선이 변화하면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작가는 그 관계의 과정을 향해서 쓰는 것입니다. 현실적 서사가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독자가 만든 사회적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거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학이 가진 그런 은연중의 힘이 없다면 소모되는 휴지와 다를 바 없겠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현재 체류하고 있는 파리에서 10월경 귀국해 2-3년간 다음 작품에 몰두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기자는 “그다음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다.

“업소 비밀이라 말하기 힘듭니다.(웃음) 지금 생각으로는 《바리데기》보다도 당대 현실에 접근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석영**